

## 청렴 지휘서신

친애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우리 기관은 천익위가 주관한 '1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보통(3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비전인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도약" 달성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패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부패행위 개념에는 불공정, 불투명, 공익침해, 불친절, 온정연고, 복지부동, 무책임, 부정직 등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제부터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는 관행이야. 뭐가 문제야?"와 같은 인식들을 스스로 돌아다보고 재점검하는 부패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 시켜야 합니다.**

과거 몇 년간 전 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화를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 향상시켜 완전히 정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장의 솔선수범과 부하직원의 공감과 참여, 상호존중과 배려만이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 될 수 있으며, 우리 조직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확립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직원 비위행위 솜방망이 징계한 공공기관 무더기 적발’ 내용과 같이 제 식구 봐주기식의 처벌은 국민들로 부터 비난받고 외면당해 결국은 기관의 존재가치를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이 되기 위해서 부패행위 발생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국방기술품질원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를 부탁 드리며, 이를 통한 건강한 직장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방기술품질원장 이현곤 61~81